

호텔과 제국주의

: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에 대해

윤상인

* **지은이 | 윤상인** 현재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로 있으며 일본근현대문학, 비교문학을 담당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에서 비교문학으로 석, 박사학위를 받았다. 런던대학 객원연구원, 도카이대학(東海大学)특임교수 및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 『일본비평』의 초대 편집장(창간호~4호)을 역임했다. 최근의 관심사는 근대 일본 문학자 및 지식인이 쓴 동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담론이다. 주요 저서로는 『世紀末と漱石』(東京: 岩波書店, 1994), 『문학과 근대와 일본』(문학과지성사, 2009)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그 후』, 『재일동포1세, 기억의 저편』 등이 있다.



1. ‘페닌슐라’의 추억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는 ‘페닌슐라’라는 커피숍이 있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한 것은 호텔 투숙객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해서 교통이 편리한 데다 ‘특급호텔’이라는 이름값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약속장소였다.

예나 지금이나 특급호텔 1층에는 로비 혹은 커피숍이 자리한다. 롯데호텔의 ‘페닌슐라’는 그 중 가장 친숙한 곳이었다.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 잠실에 두번째로 문을 연 특급호텔 롯데호텔월드 1층에도 역시 ‘페닌슐라’가 들어서 오랫동안 성업했다.¹⁾

현재 시점에서 페닌슐라라는 이름의 커피숍은 이 롯데호텔 체인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비록 업태는 바뀌었지만 페닌슐라라는 이름은 여전히 롯데호텔 곳곳에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롯데호텔 본점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롯데호텔제주의 양식당, 그리고 롯데호텔부산 및 롯데호텔울산의 뷔페 레스토랑은 모두 페닌슐라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왜 롯데호텔은 페닌슐라라고 하는 일반에게는 그다지 익숙하지도 않은 영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글은 제국주의의 상징권력 공간으로 존재했던 ‘식민지호텔’에 대한 연구 여적이다.

1) 두 곳 모두 호텔 측이 커피숍 업태를 포기하면서 그 명맥을 다했다.

롯데호텔이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에 첫 문을 연 것은 1979년 3월 10일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개업한 반도호텔이 서 있던 자리였다. 지상 37층, 지하 3층, 객실 1,200개의 규모로 ‘동양 제2의 호텔’이라는 입소문과 함께 등장한 이 특급호텔은 일본 롯데그룹의 자본 투자에 의해 탄생했다. 그 중심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가 전후에 제과업을 일으켜 큰 성공을 거둔 롯데그룹 신격호(일본명 시게마쓰 다케오 重松武雄) 회장이 있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진흥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이 신격호 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있었다고 한다.²⁾ 1973년 2월 신격호를 위원장으로 하는 ‘롯데호텔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한국관광공사 소유였던 반도호텔은 1974년 6월 정부의 비호 하에 호텔롯데에 낙찰되었다. 정부는 반도호텔 근처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본래 총독부도서관이었던 것이 해방 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바뀌었다) 등을 이전시켜 호텔 건립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롯데호텔은 반도호텔을 허문 자리에 세워졌다. 기본 설계는 일본 유수의 토목건설회사인 가시마(鹿島)건설이 맡았고, 김수근의 공간 설계사무소가 파트너가 되었다.³⁾ 그러나 신격호와 가시마 간의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일본 롯데그룹의 공장 건설로 인연을 맺은 도다(戸田)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호텔롯데는 산업은행 자리에 신관과 백화점을 지어 일대를 롯데타운으로 조성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롯데호텔 그 자체가 아니다. 롯데

2) 신격호는 1988년 6월 5일자 『아사히신문』의 「비즈니스 戰記」라는 난에 기고한 글에서 1970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전화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관광공사가 경영하는 반도호텔이 큰 적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국영기업체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가?”라는 인수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정목은 1970년 11월 13일 저녁에 박정희, 이후락, 신격호 3인이 회동했다고 증언한다.(손정목, 「반도 특정가 구 정비지구: 을지로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상)」, 『국토』 1998년 5월)

3) 손정목, 「반도 특정가 구 정비지구: 을지로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하)」, 『국토』 1998년 7월.



〈사진 1〉 소실 전의 반도조선아케이드의 모습. 중앙에 보이는 고풍스런 건물이 조선호텔, 상단 중앙에서 우측에 걸쳐 있는 높은 건물은 반도호텔이다. 반도호텔 왼편에서 조선호텔 쪽으로 초승달 형태로 이어진 회계 보이는 건물이 반도조선아케이드이다.

호텔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반도호텔에 관한 것이다.

1970년 1월 17일자 주요신문 1면 최상단은 ‘반도조선아케이드 전소(全燒)’를 알리는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경향신문』의 경우, ‘구정 노린 상품 모두 타/거의 귀금속 등 사치품’이라는 소제목도 눈에 들어온다. ‘반도조선아케이드’라는 이름은 반도호텔과 조선호텔 사이를 초승달 모양으로 연결한 쇼핑몰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사진 참조).

이 두 호텔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1970년대까지 서울을 대표하는 고급호텔로 군림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정부에 소유권이 이양되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반도조선’이라는 이름은 뭔가 불편하지 않은가? 특히 일제강점기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식민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해방 후 25년이나 지난 시점에 ‘문제 있는’ 이름이 버젓이 서울 한복판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일’을 표방한 이승만 정부는 물론이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왜색 일소’라는 구호 하에 식민지 잔재를 지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의아할 따름이다. 잠시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관광공사 총재 오재경의 구상으로 추진된 반도조선아케이드는 1965년 1월 23일 문을 열었다. 반도조선아케이드의 건설 목적은 1964년 해외여행 자유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있었다고 한다. 개관식에는 박정희 대통령, 윤치영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했다. 이 쇼핑센터에는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부유층도 몰려들었다.⁴⁾

반도조선아케이드는 수도 서울의 노른자위 땅인 소공동, 최고급호텔인 조선호텔과 반도호텔 사이에 위치했다. 따라서 신생 쇼핑센터로서는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이 지닌 브랜드파워를 엮은 이름으로 ‘최고의 쇼핑센터’임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짐작이 간다. 그런데 1936년에 개업한 반도호텔에 비해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주도해 문을 연 조선호텔이 ‘최고’의 위치를 누려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열’을 반영하면 ‘조선반도아케이드’로 명명되었어야 할 것이다.⁵⁾ 그럼에도 ‘반도조선’이라는 명백한 서열구조를 뒤집은 명명이 탄생한 배경은 오로지 ‘조선반도’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식민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환기하는 언표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조선’도 ‘반도’도 일본 측으로부터 부여된 명칭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조선’은 본래부터 존재했다. 대한제국 시대 이를 줄여 ‘한국’ 혹은 ‘한’이라고 칭하던 일본은 1910년 한국병합을 기점으로 ‘조선’으로 명명했다. ‘한국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독립, 자존의 이념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었을 터이다. ‘반도’는 근

4) 손정목, 「반도 특정지구 정비지구: 을지로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하)」, 121쪽.

5) 아케이드의 시행 주체는 이 두 호텔을 모두 소유,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질 이유도 없다.

대 이전에는 중국에도, 조선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이다. ‘peninsula’를 일본어로 ‘반도’(半島)로 번역해 사용한 것이 한국과 중국에까지 전해졌다.

‘조선반도’라는 복합어의 명명 주체는 일본이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조선반도’는 근대 일본인들의 정치적 고려와 지리적 관념 속에서 창출된 ‘타칭’인 것이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튀어나온 돌출부를 ‘반쪽 섬’(반도)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섬나라 주민인 일본인의 지리적 세계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반도는 ‘온전한’ 섬은 아니지만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으로 접근하기 위한 징검다리 와 같은 연결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반도’는 내지=일본의 ‘제국’됨을 ‘예하’에서 추인하는 ‘외지’로 존재했다.

‘반도조선아케이드’라는 명칭이 ‘조선반도’가 주는 불편한 느낌을 일정 부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반도’와 ‘조선’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지리적·정치적 층위에서의 식민지성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반도조선’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국으로의 동원과 포섭을 위한 익숙하면서도 특권적인 ‘호명’이었다).

이 글은 명명(naming)과 경관(spectacle)을 통해 이어지는 식민 유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2. ‘한토호텔루’에서 반도호텔, 그리고 롯데호텔로

롯데그룹 홈페이지의 ‘관계사 소개’에 들어가면 롯데호텔의 연혁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롯데호텔의 전신이 일제강점기의 ‘최고 호텔’이었던 반도호텔이며, ‘최고’로서의 역사와 자부심을 계승하고 있음이 천명되어 있다.

롯데호텔의 역사는 1936년 설립된 반도호텔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인 노구치 시타가후[시타가우의 옛 표기—인용자]가 설립한 반도호텔은 개관 당시 지상 8



〈사진 2〉 1940년 전후에 촬영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진으로 덕수궁 쪽에서 바라본 반도호텔 전경이다. 좌측에는 경성부청, 오른쪽으로 멀리 명동성당, 원구단, 맨 끝에 조선호텔이 보인다. 경성부청 건물이 반도호텔보다 근경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달리 더 높게 보인다.

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총 96개의 객실을 자랑하며 한국 최고의 호텔로 출범했습니다. 한국전쟁 등 한국근대사의 격동을 겪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성장했고, 1976년 롯데호텔이 인수하면서 국내 최초의 자부심은 이제 세계적 호텔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⁶⁾

1936년은 반도호텔의 모태인 '주식회사 신조선호텔'이 설립한 해이며, 실제로 호텔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38년이다.⁷⁾ 일본의 민간자본이 경성부 황금정(黃金町) 1정목(丁目) 중국요리점 아서원(雅敍園) 일대 2천여 평을 구입, 구옥들을 철거한 자리에 1936년 5월 12일 지하 1층 지상 8층의 당시로서는 조선에서 최고층, 최대 규모의 빌딩 건설의 첫 삽을 떴다. 1935년 5월 11일자 『조선중앙일보』는 연건평 6천 평의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 '아직까지는 조선에서 보지 못한 건물'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반도호텔의 '위용'은 준공과 함께 근대도시 경성의

6) <http://job.lotte.co.kr/NewRecruit/Lotte.aspx>

7) "신조선호텔 창립총회 / 野口遼 씨의 조선빌딩 건설을 伴하여 창립준비 중인 주식회사 신조선호텔(자본금 10萬圓)은 1일 오전 10시부터 창립총회를 開하고 소좌 13년(1938년—인용자) 春부터 영업을 개시하기로 되었다." 『매일신보』 1936. 10. 3)



〈사진 3〉 개관 당시의 만도호텔 전경.

중심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당시뿐만 아니라 1960년대까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시공은 토목 및 건축부문에서 일류회사로 꼽히던 하자마구미(間組)가 담당했고, 설계는 다카하시 데이타로(高橋貞太郎, 1892~1970)가 맡았다. 도쿄제국대학 건축학과를 차석 졸업한 다카하시는 황족들의 저택이나 백화점 및 호텔 설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미쓰코시백화점 본점을 설계했고, 전후에는 데이코쿠(帝國)호텔 신본관(현재의 제국호텔)의 설계를 맡기도 했다.

건물 양 측면이 약간 돌출된 ‘ㄷ’자 형태에 건물 6, 7층 사이에 대리석 장식을 덧댄 서양풍 건축이지만, 건물 중앙에 기와 처리한 발코니 패러피트는 동남아시아나 홍콩 등지의, 건물 전면부를 회랑으로 처리한 콜로니얼 양식 건축을 떠올리게 한다. 객실은 총 96개에 양식과 일본식 룸이 각각 반씩 있었다. 경성에 재주하던

일본인 커뮤니티를 겨냥해서 신도(神道)식 결혼식장까지 갖춘 본격적인 상용호텔이었다. 이용객의 대다수는 일본인과 외국인이었다.

반도호텔 설립을 주도한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1873~1944)는 도쿄제국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이며,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일본과 식민지조선에서 전기 및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했고, 당시 10대 재벌로 일컬어지면서 거대 기업집단을 이끌었다. 현존하는 찻소(チッソ), 아사히카세이(旭化成), 세키스이(積水)화학, 세키스이하우스와 같은 유수한 기업을 만든 창업주이다. 대학 졸업 후 독일의 지멘스 도쿄지사에 입사했지만 사업의 꿈을 품고 일본에서 최초로 카바이트 제조를 시작했다.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水俣)에 카바이트 공장을 세우고(후일, 일본의 대표적 공해 사례인 미나마타병의 근원이 되었다), 1908년에는 일본질소비료를 설립했다. 사업 기반을 일본 밖으로 확장하고자 1924년에 조선에 건너와 1926년 조선수력전기와 조선질소비료를 설립했다. 풍부하고도 저렴한 전력 생산을 위해 압록강 수력 개발에 뛰어들어 수풍댐을 완성했고, 생산된 전력을 흥남콤비나트(kombinat)로 송전했다. 임업회사를 만든 데 이어서 조선광업을 설립해서 함경도에서 전남 광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광산개발 사업을 펼쳤다.

그의 이력을 조사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띈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록』을 살펴보면 노구치는 1932년부터 1943년까지 연속 12년간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장에 보임된다. 노구치는 건강 문제로 1941년에 사업 일선에서 은퇴하여 요양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의 읍장 직위는 일종의 종신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그는 공직에 몸담은 적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단적으로 말해, 이는 흥남이라는 항구 도시가 노구치의 사업 전략 속에서 태어난 인공도시였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1930년대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면, 노구치 시타가우에게는 ‘사업왕’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녔음을 알 수 있다. 1939년 일본에서 출판된 노구치 평전 제목은

‘반도의 사업왕, 노구치 시타가우’였다.⁸⁾ 일본에서는 ‘전기화학공업의 아버지’로 칭송되기도 했다. ‘총자본금 10억 원(圓)을 넘는 대종합회사를 통솔하고 있는 노구치 왕국의 주인공’⁹⁾으로 군림한 그는 일본 재계의 거두였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재계의 맨 위자리를 차지한 기업인이었다.



〈사진 4〉 ‘반도의 사업왕’ 노구치 시타가우

경성에서 뇌일혈로 쓰러진 노구치는 1941년 평생에 걸쳐 모은 사재 3천만 원을 환원하고 실업계에서 은퇴한다. 그 중 500만 원은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장학회’에 기부했다. 당시 조선의 신문들은 ‘노구치 시타가우 씨의 장거(壯舉)’(『매일신문』, 1941. 9. 23), ‘감격할 반도의 은인’(『매일신문』, 1941. 9. 24) 등의 제호와 함께 미나미(南次郎) 총독과 오노(大野綠一郎) 정무총감이 감사의 뜻을 전하려 노구치의 사택을 방문한 사실을 보도했다. 반도호텔의 건립비용이 모두 300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500만 원의 기부는 엄청난 액수임을 알 수 있다. 전 사재 3천만 원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조선에서 별게 되었으니, 조선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다”¹⁰⁾는 노구치의 기부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조선에서 성공한 일본기업가의 장학 행위를 ‘선의’로 포장하고 ‘감격’해야 했던 제국/식민지의 권력관계에 대한 관찰은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삼아 한 가지 사례만 적시해 두기로 하자. 1943년 11월 22일자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이광수는 1943년 11월 21일 오후 2시에 도쿄 소재 메이지

8) 片桐竜吉, 『半島の事業王, 野口遼』, 青森: 東海出版社, 1939.

9) 『매일신보』, 1937. 6. 28.

10) 이원환, 「압록강 수력개발과 흥남비료공장 창립자 노구찌 시타가우를 살펴본다」, 『토목』 49권 10호, 1960년 10월.

대학 강당에서 열린 ‘반도학도 격려 강연회’에서 3천 명 남짓 운집한 남녀 조선학생들을 상대로 성전(聖戰) 독려 연설을 한 바 있거니와, 이 강연회를 주최한 단체는 조선장학회였다.

3. 명명의 권력 작용

당시의 신문 기사에 비추어 보면, 반도호텔 건립의 구상단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3년 정도로 여겨진다. 호텔 건립이 한창이던 1936년 10월 3일자 『매일신문』에 의하면, 호텔과 업무시설을 겸한 연면적 5,400평의 조선 최고 건물의 이름은 ‘조선빌딩’으로, 호텔은 ‘주식회사 신조선호텔’로 결정되었다.¹¹⁾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 남짓해서 같은 신문 재계소식란에는 ‘신조선호텔’은 ‘반도호텔’로 ‘개칭’되었음을 알리는 기사¹²⁾가 실렸다. 당초 의도했던 ‘조선빌딩-신조선호텔’이라는 이름의 조합에서 ‘조선빌딩-반도호텔’로 선회한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신조선호텔’은 ‘반도호텔’로 바뀌었는가?

‘조선’은 대일본제국의 강역(疆域)에 편입된 역사적·인종적·지리적 집합체의 공식명칭이다(이때의 ‘조선’은 홋카이도[예조]나 오키나와[류큐]와 다를 바 없는 타칭의 심급에 위치한다). 이에 반해 조선과 병칭된 ‘반도’는 본토(本土)의 관점에서 부여된 지리적 형상과 속성에서 추출된 통칭이다. 따라서 조선은 ‘대일본제국’과 쌍을 이루고, 반도는 ‘본토’ 혹은 ‘내지’와 짝을 이루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반도호텔 이전에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는 호텔은 조선호텔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이나 외국으로부터 오는 주요 인사를 맞이할 영빈관 격 숙박시설로 조선호텔을 건설했다. 관 주도에 의한 설립 과정이나 그 기능 및 대외적 위상으로

11) 주 7)을 참조할 것.

12) “신조선호텔 개칭/ 野口遼氏の 조선빌딩에서 영업할 주식회사 신조선호텔 來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명을 반도호텔로 개명하기로 되었다.”(『매일신보』 1937. 2. 10)

볼 때, 조선호텔은 도쿄의 데이코쿠(帝國)호텔과 흡사한 위치에 있었다. 데이코쿠호텔과 조선호텔은 다 같이 그 이름값을 하는 호텔이었다. 아울러 이 두 호텔은 전통이나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이름에서부터 제국과 식민지의 위계질서를 확정하는 관계에 있었다. 전자는 제국의 수도를 대표하는 호텔로, 후자는 식민지조선의 수도 경성을 대표하는 호텔로 그 용자를 과시했다.

일본어 속담에 “이름은 진정한 모습을 나타낸다”(名は体を表わす)라는 것이 있다. “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단테의 시문집 『신생』 8장에 나오는 ‘이름은 사물의 궁극이다’(nomina sunt consequentia rerum)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890년 11월 일본은 대일본제국헌법의 시행과 더불어 국호를 ‘대일본제국’이라 칭했다. 그 해에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발의로 나라를 대표하는 ‘궁전호텔’로 선보인 사교·숙박시설에 ‘제국호텔’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다. 그것은 서구열강 지배 하의 식민지 호텔에 붙는 ‘Imperial’ 운운이라는 단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메이지시대 일본의 위정자들은 자국의 발안과 자본으로 고급호텔을 건설하고 그것에 ‘제국’의 이름을 얹었던 것이다. 명명행위는 그 자체로 훌륭한 프로파간다였다.

호텔 이름이 정치적 의도와 결합하는 사례는 데이코쿠호텔에 국한하지 않는다. 러일전쟁의 승전 이후 중국 동북부 지역에 진출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약칭 ‘만철’)는 다롄(大連)을 기점으로 하얼빈, 뤼순, 창춘, 평톈, 푸순 등지의 만철선 연선의 주요 도시에 직영 고급호텔을 짓고 도시명을 얹어 일률적으로 ‘○○아마토호텔’이라 이름 지었다(예컨대, 뤼순 아마토호텔, 창춘 아마토호텔 등). 심지어 함경북도 나진에 지은 호텔에도 ‘나진 아마토호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마토’(大和)는 ‘아마토다마시이’(大和魂)와 같은 용례에서 보듯이 국수적인 어감을 갖는 일본의 별칭이다. 아마도 러시아세력이 물러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일본에게 모니’를 천명하고자 채택된 명칭이라 여겨진다. 서양문명·문화의 결정인 호텔에 일

본정신을 덧댄 작명 방식은 일본의 근대화 이데올로기였던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사고와 정확하게 겹친다.

명명을 통한 프로파간다 전략은 일본제국주의의 말기까지 이어졌다. 연합군을 상대로 전선을 확대한 일본군은 1942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를 점령했다. 일본의 점령통치는 개명(renaming)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어식 이름이었던 싱가포르를 ‘소남도’(昭南島)로 개명했다. ‘쇼와(昭和)시대에 남쪽에서 획득한 섬’이라는 뜻이다. 동인도회사 출신으로 1819년 싱가포르를 영국관할령으로 만든 토머스 래플스(Thomas Raffles) 경의 이름을 딴 래플스호텔을 ‘소남(昭南)여관’으로 개명하고 일본군 장교 숙소로 사용했다.

개명을 통한 호명은 현지인들의 회유와 포섭을 의도한 것이었다. 1941년 12월 5일 홍콩 주둔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 낸 일본군은 홍콩 최고의 호텔이었던 페닌슐라호텔(The Peninsula Hotel)을 접수하고, 이를 ‘동아(東亞)호텔’로 명명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의 대의명분이던 ‘대동아공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개명이었다. 영국 해계모니의 잔재를 일소하고자 영어간판을 금지시켰고, 영국식 지명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꿨다. 예를 들면 퀸스 로드(Queen's Road)는 메이지(明治)통, 홍콩 제10대 총독의 이름을 딴 데 보 로드(Des Boeux Road)는 쇼와(昭和)통으로 바꿨다. 도시의 상징공간 곳곳에 각인되었던 대영제국 패권의 흔적을 말소하고 그 자리를 일본 천황의 연호로 바꿔 넣음으로써 통치 주체의 교체を 알렸다.

여기서 잠시 페닌슐라호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애칭 ‘펜’(The Pen)으로 불리는 페닌슐라 호텔은 주룽(九龍)반도(Kowloon Peninsula) 맨 끝에 위치하며 바다를 끼고 지척에서 홍콩 섬을 마주하고 있는 세계적인 특급호텔¹³⁾이다. 1921년 홍콩 주재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타거트의 발의로 건립에 착수한 페닌슐라호

13) 일례로 2000년에 발행된 미국 잡지 『트래블 앤드 레저』(Travel and Leisure)는 페닌슐라호텔을 세계최고호텔 4위에 올렸다. 발레리 줄레조 외 지음, 양지윤 옮김, 『도시의 창, 고급호텔』, 후마니타스, 2007, 195쪽 참조.



〈사진 5〉 1930년대의 홍콩 페닌슐라호텔.

텔은 1928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영국인 건축가 W. D. 굿펠로는 한층 위엄을 높이기 위해 유럽의 전통적인 르네상스 풍 디자인을 선택했다. 이 웅장하면서도 미려한 H자 형태의 8층 호텔이 준공되자 곧바로 ‘동서양을 가르는 기준점인 수에즈 동쪽에서 가장 멋지고 세련된 호텔’이라는 별칭을 얻었다.¹⁴⁾

페닌슐라호텔의 중국식 이름은 ‘홍콩반도주점’(香港半島酒店)이다. 물론 주룽반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반도는 외부세력의 영토적 욕망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지역이다. 중국대륙에서 남쪽 바다를 향해 돌출한 주룽반도는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영국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미 홍콩섬(Hong Kong Island)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에게 바다 건너 눈앞에 펼쳐지는 주룽반도는 대륙을 향한 ‘징검다리’로 비쳐졌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창궐하던 시절에 ‘반도’라는 지형이나 명칭은 자주 조차지나 식민지와 같은 타율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

14) 발레리 줄레조 외 지음, 『도시의 창, 고급호텔』, 207쪽.

이다. 발해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중국대륙 최대의 반도인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는 모두 독일, 러시아, 일본의 지배를 겪었다. 특히 조선 및 랴오둥반도, 산둥반도에서 패권을 행사한 바 있는 일본에게 있어서 대륙진출의 교두보는 모두 반도였던 셈이다.

홍콩의 페닌슐라호텔과 경성의 반도호텔은 우선 반도라고 하는 ‘식민지성’을 내포한 명칭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호사가의 흥미를 유발한다. 페닌슐라호텔의 운영권이 영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듯이, 1945년 미군 진주와 함께 미군사령부의 핵심거점이 된 반도호텔도 비슷한 운명을 경험했다.

발레리 줄레조는 “1930년대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까지도 페닌슐라호텔은 아시아 고급호텔의 본보기였다”¹⁵⁾고 말한다. 시점상으로 보면 1936년에 기공한 반도호텔이 페닌슐라호텔을 참고로 삼았을 가능성은 존재한다(전면의 ‘ㄷ’자 양식에 옥상의 처마 처리와 2층 안쪽면의 패러핏, 5층과 6층 경계에 좌우대칭으로 배치된 대리석 장식 등은 반도호텔의 그것과 유사하다). 특허 교섭 등으로 자주 유럽 출장 길에 나섰던 노구치 시타가우나 설계자 다카하시가 일본-유럽 정기항로의 기착지인 홍콩항에 인접한 페닌슐라의 위용에 직접 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명확히 말하자면 두 호텔의 관련을 입증하는 연결고리 찾기는 이 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두 호텔 모두 외세에 의해 세워졌고 외세를 대상으로 한 특권적인 사교·위락 시설로서 도시경관 속에 군림했다.

4 ‘호텔 제국주의’에 대해

일제강점기에 인쇄된 반도호텔의 브로슈어는 한 눈에도 ‘식민지’스럽다. 브로슈어의 상하단 상호 부분을 한국식 단청문양으로 장식한 디자인 때문이 아니다. 브

15) 발레리 줄레조 외 지음, 『도시의 창, 고급호텔』, 209쪽.

로슈어 표지를 가득 채우는 이 근사한 호텔은 ‘조선’ ‘경성’ ‘반도’와 같은 타칭의 연쇄 속에서 그 공간적 정체성과 권력적 속성을 부여받고 있다. 상단의 ‘HANTO’(한토;반도), ‘KEIZYO’(케이조;경성), ‘TYOSEN’(초센;조선)과 같은 영문표기를 병렬해 보면 이 호텔이 존재하고 있던 시공간이 얼마나 낯선, 혹은 강요된 지리적·공간적 정체성 속에서 구성되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반도호텔은 주한 미군 사령부 및 미 제24사단 사령부가 되어 하지 중장 등의 사무실과 숙소가 되었다. 이승만, 김구, 장덕수 등 정계 요인이 하지 중장을 만나기 위해 드나들면서 한국의 ‘호텔정치’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손정목은 증언한다.¹⁶⁾

브로슈어 속 그림의 오른쪽 아래의 호텔 포치 위에 설치된 ‘半島ホテル’

(한토호텔루)라는 네온사인인 미군 주둔 후에 ‘BANDO HOTEL’로 바뀐다. 홍콩의 페닌슐라호텔은 패권세력의 이동에 따라 Peninsula Hotel→Toa(東亞) Hotel→Peninsula Hotel로 바뀌었고, 경성의 반도호텔은 Hanto Hotel→Bando Hotel→Lotte Hotel로 바뀌었다. ‘한토호텔루’(반도호텔)는 중



〈사진 5〉 반도호텔 브로슈어 표지 그림. 전화번호 7171은 이 숫자의 한국어 발음 ‘칠일칠일’이 방울소리나 전화벨 소리를 표현하는 일본어 의성어 ‘치렁치렁’(ちりんちりん)과 비슷하기 때문에 채택된 듯하다.

16) 손정목, 「반도 특정기구 정비지구: 을지로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중)」, 『국토』 1998년 6월.

주국의 거대자본이 식민지에서 축적한 이익을 토대로 설립한 전형적인 식민지호텔이었다. 해방 후 미 군정을 거쳐 ‘반도호텔’이라는 명성에 얹혀 갱생의 길을 모색하였지만 결국 경영 악화로 신음하였고, 여기에 재생의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또 다시 일본에서 부를 축적한 외세 자본이었다.

이쯤 해서 다시 ‘신조선호텔’에서 ‘반도호텔’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노구치 시타가우는 건축예정인 건물 이름을 ‘조선빌딩’으로 정했다. 당시로서는 최대규모에 최고층의 건물에 대한 긍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안에서 영업을 할 호텔 이름이었을 것이다. 기존의 규모나 내부 설비에서 조선 최고(朝鮮一)일지라도 ‘조선’이라는 이름은 이미 조선호텔에 선점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후발주자로서 혁신과 도전의 이미지를 담은 ‘신조선’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고 대두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조선호텔’이라는 이름은 도중에 자취를 감췄다. 결국 ‘주식회사 신조선호텔’이라는 명의의 법인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어떤 반발이나 압박에 조우해서 좌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조선호텔과 신생 ‘반도호텔’은 같은 소공동에 위치하며 그야말로 지척의 위치에 있었다. 조선호텔을 지척에 두고 신생호텔이 ‘신조선’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도전과 자유경쟁 같은 상업적 충위를 떠나 사회적으로 ‘불경’에 가까운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최대규모에 현대식 설비까지 완비한 ‘신조선’호텔이 영업을 시작하는 순간 조선호텔은 ‘구조선’호텔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식민지의 영빈관급 호텔에 특권적으로 부여된 ‘조선’이라는 호칭을 후발주자와 ‘나눠’ 쓰는 것 자체가 허용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반도호텔’은 차선으로 채택된 명칭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에 대한 공칭 ‘조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대안으로 통칭인 ‘반도’를 선택했다는 추정이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경성을 대표하던 두 호화호텔은 지근거리에서 ‘조선’과 ‘반도’를 각각 나눠 쓰면서 호명 주체인 ‘대일본제국’과 ‘본토(내지)’의 정치

적·문명적 권위를 떠받치는 프로파간다 장치였던 셈이다. 식민화 과정의 보편적 양상은 무엇보다도 현지인들을 중주국의 타칭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여기에서 도출된다.

왜 노구치가 호텔에 진출했는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에게 있어 호텔 사업에서 거둘 수 있는 기대수익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기에 더욱 궁금할 따름이다. 손정목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한다. “1930년대 전 반기의 어느 날, 노구치가 흥남의 공사현장에서 입고 있던 모습 그대로인 점퍼와 당꼬바지, 지카다비(노동자용 작업화)를 신은 허름한 차림으로 조선폰 호텔을 찾았다. 숙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조선폰 호텔 종업원이 그를 몰라보고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중략) 화가 난 노구치는 조선폰 호텔 바로 뒤 황금정(을지로) 1가 18번지, 2,000평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다. 건평 6,000평, 높이 8층짜리, 당시 이 땅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35년 가을부터의 일이다”.¹⁷⁾

반도호텔이라는 걸출한 식민지유산의 탄생비화로 부족함이 없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극적 열개도 잘 갖춘 데다 흥미롭기까지 하다. 단지, 불쾌한 경험에서 빚어진 노구치의 개인적 정념이 호텔 건립으로 이어졌다는 스토리는 적어도 연구자들에게는 어떤 감동이나 설득을 전하지 못할 듯하다. 무엇보다도 이 스토리의 출처나 방증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 짜여진 ‘뒷 이야기’보다는 현실적 관점에서 노구치의 호텔사업 전개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이 생산적일 듯하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고급호텔은 일반인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장소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급호텔은 귀족계급이나 사교계의 구성원들이 평소 누리고 있던 신분적·문화적 환경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문화 엘리트들이 모이

17) 손정목, 「반도 특정가구 정비지구: 을지로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중)」.

는 고급호텔은 권력의 저류지이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발안으로 제국호텔 건립에 공동투자한 나머지 두 사람은 일본재계의 실력자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와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였다. 제국호텔 경영을 맡은 이 두 사람은 사업에서 승승장구했고, 1901년에는 경부철도회사를 설립해서 조선에서 철도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정치권력과 자본은 언제나 서로를 의존하기 마련이다. 노구치 시타가우는 유능한 엔지니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그가 일본의 10대 재벌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교능력도 거들었던 것 같다. 그는 조선에서 '정상'(政商)으로 불렸다.¹⁸⁾ 노구치는 일본군이 진출한 만주와 해남도까지 사업기반을 확장했다. 6대 조선총독을 지냈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잡지 『삼천리』와 가진 대담에서 노구치의 전력사업 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¹⁹⁾ 조선호텔이 온전한 관영호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해 탄생한 반도호텔은 통치 권력과의 사교적 관계 속에서 '부수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 될 수 있었다.

노구치의 호텔사업 전개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 줄 힌트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손정목은 앞의 논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재벌들에게 호텔 사업을 '분배'한 과정에 대해 기술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박문사(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지은 사찰) 터에 지은 영빈관과 소공동 조선호텔은 삼성그룹에, 위커힐호텔은 선경그룹에, 반도호텔은 일본롯데에 그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외에도 서울의 유수 특급호텔의 상당수가 재벌기업들이 소유와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왜 재벌과 호텔사업인가라는 질문에는 세속적인 층위의 답변만이 떠오를 뿐이다. 혹 도심 요충지에 부동산을 확보하고자 하

18) 일본어판 위키피디아에 이와 관련한 기술이 나온다. "조선반도 진출 후 노구치 시타가우는 정상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각별한 비호를 받으며 압록강 수계에 부전강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나 건설했고, 함경남도 흥남에 거대한 콤비나트를 조성했다." [http://ja.wikipedia.org/wiki/%E9%87%8E%E5%8F%A3%E9%81%B5]

19) "記者：閣下는 野口遼氏와 매우 절친하신 모양인데 野口氏は 朝鮮의 事業王이지요. / 宇垣：아니 朝鮮의 事業王뿐 아니요. 日本의 事業王이요. 지금 實業界에서 그만한 일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였소. (『삼천리』 1938. 11)

는 경영전략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와 연계된 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왜 재벌기업은 앞다퉈 골프장을 소유하려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다.

데이코쿠호텔에서 반도호텔에 이르기까지 고급호텔의 설립과 경영에는 재벌기업이 간여했다. 고급호텔이 권력 엘리트들의 집합지였음을 고려하면, 호텔은 ‘자연스럽게’ 이익 동기와 비호권력이 유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호텔은 정치권력에 봉사하는 공간이었고, 호텔은 경제권력을 유지·확대시키는 시설이었다. 일본의 근대사,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 보건대, 재벌기업의 호텔 사업은 편법적으로 권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시아적 후진성의 산물이었다.

일본열도에는 북으로는 네무로(根室)반도에서 남으로는 사쓰마(薩摩)반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54개의 반도가 있다. 반도는 바다를 접한 지형이기 때문에 관광, 휴양지로 적합하여 숙박업소도 많기 마련이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일본에 존재했거나 현존하는 호텔 중에 ‘반도’를 상호로 사용한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반도’라는 공간명사는 일제강점기의 ‘(조선)반도’의 시공간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었다는 씁쓸한 인식과 마주하게 된다. ‘반도’는 곧 식민지인 것이다.